

#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십인일색' 과학정책

글 | 이은정 \_ KBS 과학전문기자 ejlee@kbs.co.kr

**올**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경선 때 있었던 일이다.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요즘 지구온난화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올랐는데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한 후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잘 마련할 계획입니다”라고 대답을 한다. 그 후보의 지식은 ‘지구온난화=이산화탄소’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상대방 후보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다지 반응이 없다. 보좌진이 적어주었는지, 평소 신문에서 읽은 지식인지 각자 자신의 지식을 간단히 피력하면 그냥 넘어가는 수준이다. 도대체 논쟁의 구도가 이어지지 않는다.

대선 시즌이 시작되면 과학계는 잠시 ‘우리도 정치에 관심을 갖자’는 슬로건을 내건다. 우리 나라 과학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과학 정책을 내놓으며, 대선 후보들을 초청해 토론회도 갖는다. 그러나 과학계의 뜨거운 관심에 비해 정치인들은 과학에 대해 따뜻미지근한 반응이다. 대놓고 무시할 수는 없지만 주력하지 않는다는 인상이 역력하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아니 올해는 지난 대선과 비교할 때 과학에

대한 관심이 더욱 뒤떨어져 있다. 12월 대통령 선거가 10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왜 과학은 이슈가 안 되는가.

대선 경쟁에 참여하는 후보와 보좌진들에게 물어본 결과 답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우리 나라 대통령 선거 자체가 정책 경쟁이 아니라 ‘약점 찾아 헐뜯기 경쟁’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 정책이 먹힐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정책 경쟁을 벌인다 하더라도 과학 분야는 어려워서 국민들에게 잘 다가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들이는 품에 비해 효과가 미미한데 누가 정책 개발에 투자하려 하겠는가. 가뜰이나 시간도, 사람도 부족한 각 후보캠프들이 말이다.

첫째 이유야 우리 나라 정치 자체의 한계이므로 일단 논의로 하자. 그러나 두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보아야 한다. 왜 여러 후보들이 모두 비슷비슷한 과학정책이나 원론적인 얘기에서 끝나버리는지 말이다.

## 과학신비주의를 벗어나야

한나라당 대권후보 경쟁에 나섰던 원희룡 의원은 “실제로 경선 과정에서 과학 분야에 기울이는 노력은 많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한나라당 경선 자체가 워낙 부동산 문제나 사생활 문제로 들어가는 바람에 정책이 묻혀버리기도 했지만 후보 스스로도 과학 분야에 우선권을 두고 과학으로 차별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원 의원은 “대부분 정치인들은 대학에서 인문 사회계열을 공부했기 때문에 과학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막연한 과학신비주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학이나 행정학과 같은 분야는 기본적으로 아는 게 있지만 과학은 기본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또 다른 문제는 과학 분야의 이슈는 다른 진영과 차별화가 안 된다는 것이다. 후보들 대부분 ‘과학은 중요하고 잘 살려야 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표가 움직일 수 있다는 긴장감이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원희룡, 박근혜, 홍준표 대선예비후보가 지난 8월 20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손을 들어 지지자들에게 답례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대통합민주신당 대선예비후보인 손학규 전경기지사(왼쪽부터), 천정배, 유재건 의원, 한명숙 전총리, 김두관 전행정부장관과 오종일 대표, 추미애 전의원이 지난 8월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추 의원 대선출마 선언식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서울=연합뉴스).

지난 6월 29일 과실연이 주최했던 '차기정부의 과학기술과제 설명회'에는 이러한 상황이 그대로 녹아있었다. 참석한 대권 후보는 원희룡 의원 한 사람밖에 없었으며 후보측의 정책 담당자 몇 명이 자리를 함께 했으나 대부분 과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궁금해서 온 경우였다. 몇몇 보좌관들은 기자에게 명함을 내밀며 “앞으로 과학정책을 만들어 갈테니 조언을 해달라”거나 “과학에 대해 앞으로 고민해보겠다”는 답을 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 선거에서 과학은 항상 중요한 의제로 등장했다. 물리학과 출신인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 화학을 전공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처럼 유럽에서는 이공계를 전공한 정치 지도자도 많았다.

### 올해 대선의 과학 이슈는 무엇?

8월 20일 이명박 씨가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면서 서서히 대권 후보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범여권에서는 손학규, 정동영, 한명숙, 이해찬, 유시민, 추미애 씨 등이 후보등록을 마쳤고 민주노동당은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의원이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 동안 부동산 논쟁 때문에 희미해졌지만 이명박 후보의 경우 일찍부터 ‘은하도시 건설’을 과학 공약으로 내걸었다. 가속기와 같은 거대 과학기기를 만들고 그 주변을 과학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서울대 민동필 교수가 주요 뼈대를 제공하고 있다. 아마도 이 후보측은 대운하 공약과 함께 은하도시를 주요 공약으로 계속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측에서도 몇몇 의원들은 발빠르게 의제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정동영 의원은 우주개발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2020년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달에 위성을 발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에어-7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를 위해 7월 중에 대전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천의 항공우주산업(KAI) 등을



2007년 8월 20일 민주노동당 대선주자인 권영길, 심상정, 노회찬 의원이 제주도 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아름다운 경선을 다짐하는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주=연합뉴스).

현장 방문했다.

한명숙 의원은 7월 오송생명과학단지 방문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관한 의견을 밝혔으며, 8월에는 광주과기원을 방문하는 등 과학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 의원측 김연진 전문위원은 “환경부 장관 출신인 한 의원은 스스로가 과학 분야에 대해 관심이 많고 네트워크가 풍부하다”며 “9월이 되기 전에 뚜렷한 정책 비전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후보 대선 캠프에서 일하는 언론계 출신의 한 인사는 과학 공약에 대한 어려움을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일자리 문제나 부동산 문제는 누군가가 정책을 만들어 가져와도 그 내용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논쟁이 가능하지만 과학 분야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전문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잘 모르면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없으므로 자문단에서 일하는 과학자의 의견이 곧 캠프의 의견이 된다”.

앞으로 대선 구도가 재정비되면 아마도 많은 과학자들이 특정 후보의 자문단으로 활약하게 될 것이다. 자문단 안에서 과학자가 만들어내는 정책은 논쟁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의 몇몇 인사들처럼 개인의 전공이나 연구 주제에 대한 프로젝트만 내놓고 이를 관철시키려하지 말고 과학 전체를 아우르는 비전을 갖고 올바른 조언과 자문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과학단체나 일반 과학자들도 각 후보들의 공약에 관심과 비판 의식을 갖고 시시비비를 잘 가려줘야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⑤



글쓴이는 서울대 미생물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서울대 의대에서 박사학위(생명윤리)를 받았다. 1995년 언론계에 입문 후 경향신문에서 10여 년간 과학분야를 담당했다.